



t 051.868.6300

전략집단 이음 COMPANY PROFILE

지식을 전략으로, 전략을 자산으로

Arcadia OS 기반 지식 전략 기업

정부·공공·민간 전 부문에 즉시 작동하는 전략 구조와
실행 가능한 정책·기획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ARCADIA
by EEUM Strategy Group

EEUM
STRATEGY GROUP

CEO Message

우리는 답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구조를 세우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납품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략집단 이음은 조직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운영체제를 설계합니다.

우리는 답을 대신 써주는 조직이 아닙니다.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세우는 조직입니다.

우리의 Arcadia OS는 시를 지식 재구조화 장치로 작동하게 합니다.

흩어진 정보·경험·맥락·판단을 다시 엮어 실행 가능한 구조와 질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음은 연구·진단, 컨설팅·설계, 출판·축적을 나누지 않고 같은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남아야 할 것은 파일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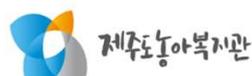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식 운영체계와 자산입니다.

전략은 구조입니다.

전략집단 이음은 그 구조를 성장과 승리의 결과로 바꾸는 조직입니다.



Clients



구조로 움직이는 전략집단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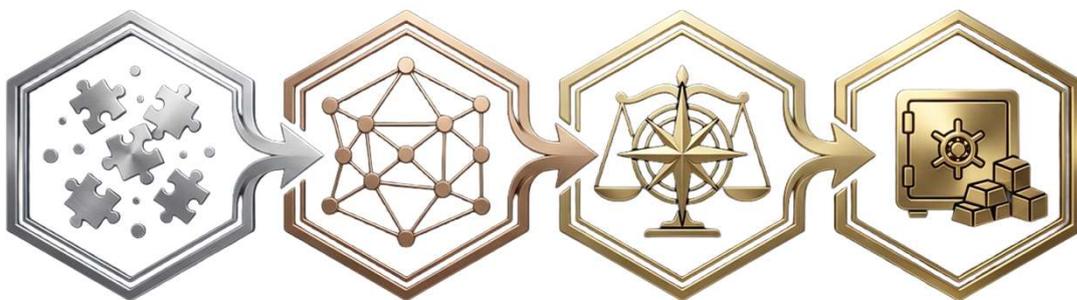
자료는 많습니다. 경험도 많고, 보고서도 많고,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판단은 흔들리고, 전략은 흩어지며, 성과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정보를 판단의 기준으로 바꾸는 구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집단 이음은 바로 그 구조를 설계합니다. 흩어진 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고, 결과가 다시 자산으로 남게 만드는 일. 그것이 이음의 출발점입니다.



흩어진 정보

판단의 기준

자산으로 전환

Arcadia OS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Arcadia OS를 기반으로 흩어진 지식을 구조화하고 그 구조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축적합니다.

1

지식을 구조화 합니다.

2

구조를 전략으로 바꿉니다.

3

전략을 오래 남는 자산으로 축적합니다.



Arcadia OS의 구조와 원리

Arcadia OS는 지식 재구조화를 통해 AI가 사유하도록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일반 AI가 질문에 답하고 초안을 만들며 순간 효율을 높인다면,
Arcadia OS는 지식을 다시 짜고 연결하고 해석해 판단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운영 원리



언어구조화: 흩어진 말을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의미연결: 요소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드러냅니다

지식융합: 서로 다른 재료를 판단 구조로 묶습니다

판단운영: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실행구현: 결과물로 구현합니다

생산성 혁신

Arcadia OS는 최대 100배 시간 압축할 수 있습니다.



220 페이지 단행본:
약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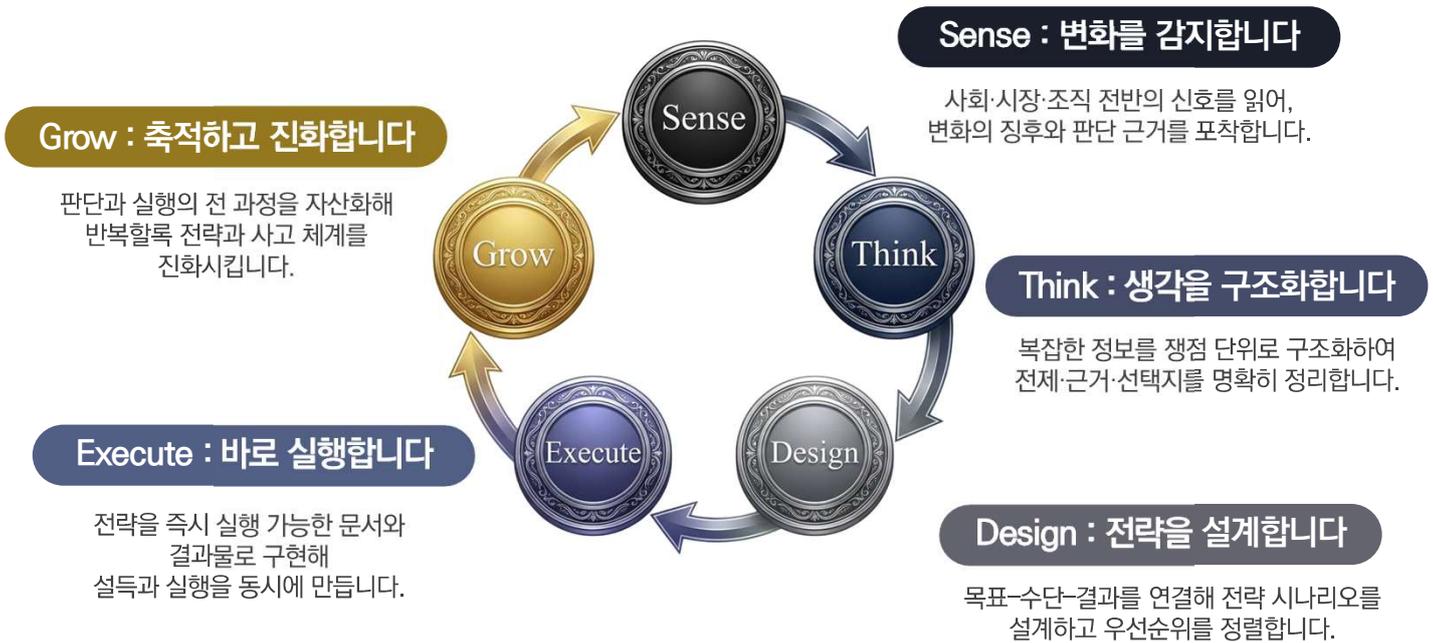
출간 공장:
약 2일



연구 보고서:
약 5일

순환구조로 움직이는 5단계 실행 체계

경영환경과 시장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비전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전략집단 이음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사회를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변화를 읽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통은 신뢰와 협업이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연구-자문-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통을 고민하고 발전시켜, 사회 각 분야에 구체적 실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구조

이음은 네 단계의 운영체계를 남깁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그 조직 안에는 다음 판단과 실행을 떠받치는 운영체계가 남습니다.



1. 엔진 투자



2. 연구 및 분석



3. 시스템 이식



4. 자산화 및 확산

사업 구조 및 조직

이음의 사업은 Arcadia OS, 출판·지식 자산화, 연구·컨설팅, 자동화·특허의 네 축으로 움직입니다.

Arcadia OS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지식을 구조화하고 전략으로 바꾸고 자산으로 축적합니다.



Arcadia OS



출판·지식자산화



연구·컨설팅



자동화·특허



Arcadia OS 지식 재구조화 운영체계



연구·컨설팅 현상을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설계



출판·지식자산화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



자동화·특허 연계 성과를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전환

기획과 실행, 축적과 확장을
같은 흐름으로 연결하는 조직구조



연구·컨설팅 운영체계

이음은 독자적인 네 개의 운영체계 (4-AX System) 로 연구와 컨설팅을 자동화합니다.
정부는 G-AX, 공공기관은 P-AX, 기업은 B-AX, 선거는 E-AX로 다룹니다.
분야는 달라도 접근은 같습니다.

이 네 개의 AX 시스템은 이음의 연구·컨설팅이 실제로 작동하는 핵심 실행 단위입니다.



정부

G-AX는 지방정부와 광역지자체를 위한 차세대 거버넌스 운영체제입니다.
민심을 읽고 정책을 설계하며, 현장을 운영하고 경험을 학습 자산으로 남깁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전략과 현장을 함께 바꾸는 경영 혁신 운영체제입니다.
기관의 존재 가치를 다시 세우고, 조직·서비스·사업 구조를 함께 재설계합니다.



기업

기업을 추격자에서 설계자로 바꾸는 지능형 경영 운영체제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 구조를 설계하며, 조직 혁신과 성장 학습까지 함께 만듭니다.



선거

선거 승리를 설계하는 선거 전략 전용 운영체제입니다.
전략 설계, 캠페인 실행, 메시지 확산, 전략 조정을 하나의 승리 구조로 묶습니다.

출판 운영체계

연구와 컨설팅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는 출판, AI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출판, 변화의 파고를 해쳐 나가는 출판, 이 세 가지가 전략집단 이음의 출판 철학입니다.

전략집단 이음 출판의 개념



구조의 기록

전략과 판단 구조를 문서와 콘텐츠 형태로 고정합니다.



지식의 축적

개별 프로젝트 결과를 반복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자산의 확장

출판을 통해 조직 내부를 넘어 사회와 산업으로 연결합니다.

전략집단 이음의 출판 생태계



Arcadia Project

문명과 공간의 지식을 축적하는 아카이브 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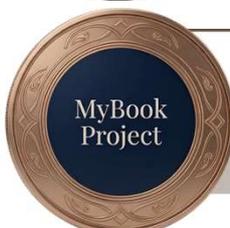
Insight Project

인문사회 지식 축적의 축입니다.



WeAreBook Project

구성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의 자산화 축입니다.



MyBook Project

자신의 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출판 실현 축입니다.



Arcadia Project

Arcadia 프로젝트는 세계와 한국을 **문명·시간·도시·지역·거점·음식**의 여섯 축으로 재구성해 기록하는 **문명형 지식 아카이브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출판 시리즈가 아니라, 지식을 구조화하고 축적하며 확장하는 장기 플랫폼입니다.



Arcadia Expansion Plan

책을 넘어 아카이브, 공간, 네트워크로 확장됩니다. 특히 각국 대사 네트워크와 지자체 단체장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 이해**를 높이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공공적 협력 기반으로 확장됩니다.



연구·컨설팅·출판 통합 생산 공정

1단계 : 지식 제련소
(핵심 주소소)

2단계 : 데이터 정제 공정
(Refining Lines)

3단계 : 시스템 조립 라인
(조립 및 배포)

4단계 : 자산화 및 출하
(IP&Publishing)

연구사업본부

컨설팅사업본부

혼돈의 데이터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

지식
에너지

전략적 통찰

G-AX(정부)

P-AX(공공)

B-AX(기업)

G-AX(선거)

전략 정책

연구 컨설팅 출판 발명권리

고객

발명권리 출판엔진

지식 자산

공정 운영 방식

이음은 지식을 원료로 정제하고 조립해 전략자산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는 현상을 읽고 본질을 가리는 진단이고,

컨설팅은 그 진단을 바탕으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설계하는 일이며,

출판은 그렇게 만들어진 전략과 통찰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축적하는 일입니다.

세 기능을 연결된 공정으로 묶어 결과가 축적되게 만듭니다.

연구는 진단입니다. 컨설팅은 설계입니다. 출판은 축적입니다.

세 기능은 하나의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전략은 구조다” 구조는 문명을 만든다



CONTACT US.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5번길 96, 2층

TEL : 051) 868-6300

E-mail : gg4145@hanmail.net

